

주제회의
어린이청소년

공교육의 상향 평준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우리 모두의 숙제

양미현
[살레시오중학교 교사]

1.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불평등의 현실에 대한 의견

교육적 차원에서 불평등 문제는 늘 화두였습니다. 의무 교육, 무상급식, 수학여행을 비롯한 각종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사회적 목소리와 합의가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서 불평등의 문제는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정책이 외형적 차별과 그로 인한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적 불평등 해소에 힘을 실은 만큼 내적 불평등은 더 크게 심화되었다는 게, 현장에서 교사로서 체감하는 불평등의 현실입니다.

저는 국어 교사입니다. 학생들에게 말과 글을 매개로 사유하고 느끼며, 타인과 세계와 소통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처리하는 역량, 정말 말 그대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생존 능력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25년 동안 중1부터 고3 학생들까지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위기의식이 더 커졌습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앞서 언급했던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생존에 필수이며,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역량이 공교육에서 시험 백 점을 맞는 것과는 별개의 영역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공교육을 의무화하고 각종 무상정책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는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평등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무대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와 관련해 많은 역량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능력이 ‘변화되는 정보와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내면의 가치를 인식하며 살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의 네 가지 기둥을,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행동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함께 살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으로, 21세기에 맞는 교육적 대응과 전략을 채택했을 것입니다. 즉, 위에서 나열한 학습 능력이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은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로봇의 대체가 쉽지 않은 분야는 개발도상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외적인 평등을 위한 각종 정책은 쏟아져 나오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평등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경험하는 공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생각하는 교육일까요? 지식과 일상의 삶이 연결되어 알기 위한 필요와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일까

요? 그래서 평생 학습자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식의 결과물만을 주입하고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세팅해 놓은 구조 안에서만 결괏값을 도출해 내야 하는 정형화된 사고를 키워내는 공교육의 방향에 큰 변화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교육 환경에만 노출된 학생들이 과연 이 시대에서 도태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학부모들은 그래서 공교육에만 아이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의 영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의 폭을 넓힌 학생들의 역량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의 결과물은 또 다른 지식을 낳는 마중물 이기에 유아기 때부터 이런 경험을 축적하고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지식습득 능력 또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교육의 힘이 셉니다. 이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의 지식과 역량이 대학 진학을 결정하고 여러 교육의 기회를 얻고 세계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운동도 잘하고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고, 인성까지도 좋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무엇을 하든 의욕이 없고 할 줄 아는 게 많지 않다며 씁쓸한 심경을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도 그럴 것이, 소득이 많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이 유아기 때부터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환경이 다릅니다. 사교육의 영역에서 운동도 가르치고 음악, 미술, 독서활동 등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자녀가 한 명 혹은 두 명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이런 경험의 제공 여부는 소통 능력 등 다양한 정서적,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과거엔 가난하기 때문에 한 방에서 열댓 식구가 부대끼며 살아야 했기에, 의식주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오히려 정서적, 사회적 능력이 크게 발달했다면, 지금은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는 빈 집에 홀로 남아 생활하기에 지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이 크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육 현장에서 이를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특히 격차가 커졌습니다. 가정에 머물며 부모의 정서적, 물질적, 교육적 환경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은 학생들과 가정에 머물렀으나,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역량은 ‘부족하다’라는 말을 뛰어넘어 적극적인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학교 생활의 팔 할(80%)이 수업인데, 수업에 집중해서 참여하기 어려워지니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이런 불편한 마음은 학교 내에서 여러 갈등을 낳게 됩니다. 결국 학교 안팎에서 방황하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2.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교육의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사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공교육을 통해 유네스코가 말한 교육의 4가지 기둥을 학습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학원이나 대안학교를 가야만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학생으로 자라지 않도록 공교육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주말에 시간을 내서 동행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운동을 하고 여행을 하고, 각종 예술 활동을 꾸준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공교육에서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몇 년 전 공교육에서 이런 교육활동을 펼쳐나가는 독일의 ESBZ, 덴마크 외레스타드 김나지움 학교를 방문해 여러 교육 주체와 학생들을 만나고 교육적 환경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졌던 큰 울림은, ‘공적 영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도맡아 하고 있구나’였습니다. 앞서 말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과정,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와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지원시스템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누구나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의 수준이 상당했습니다. 학교 건물은 최고의 디자인과 색감을 자랑합니다. 분명히 무료입장인데, 전시나 활동 프로그램의 수준이 아주 값비싼 입장료를 내야만 경험할 법한 수준이었습니다. 공원의 무료 야영장, 도서관은 그 풍광이나 관리 수준이 절대 무료일리가 없다는 확신을 애써 시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나라에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사교육비에 매달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야 하는 두 아들의 엄마로서 했던 생각은, ‘이곳에서는 돈 없어도 양질의 교육 기회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겠구나’였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신입생 중 고소득층의 자녀 비중이 크게 늘고 저소득층은 줄어 그간 계층 이동의 통로로 여겨져 왔던 교육 사다리가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학의 입학 여부가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절대적 교육 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이 삶의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다리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힘도 셉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돈이 있어야 양질의 교육을 통해 물질적 정신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양질의 교육의 가치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부재가 능력의 부재, 정체성의 부재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깨뜨려야 합니다.

“학교를 좋게 만든다면 모든 국민이 12년 동안 인격 형성 시기에 가장 좋은 집에서 살다가 나올 수 있다”며 학교 건물을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저층 건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축전문가 유현준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를 읽으며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누리는 건물만 바뀌도 아이의 미래와 사회의 미래까지 바뀐다는 게 검증된 사실인데, 교육과정을 포함한 유무형의 교육 환경이 바뀐다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교육의 격차를 낳고, 또다시 계층 간의 불평등, 갈등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교육의 상향 평준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우리 모두의 숙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평등을 해소해야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명제인 듯 하지만 학교와 가정에서 이를 충실하게 가르치고 있는가는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과서에서야 분명히 불평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주요 과제라고 명시돼 있고 지식적 차원에서 가르치고 관련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시험을 통해 확인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이 부분을 힘주어서,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면, 불평등 문제는 언제나 소외된 사람들이 고민해야 하는 그들만의 숙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국어 수업 및 동아리 활동 등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한 번은 UN이 정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독서 및 글쓰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도서를 정독한 후, 17가지 목표 중에서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도, 어떤 직업을 갖든, 관심을 갖고 행동하기를 하고 싶은 지속가능목표 2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작성해 발표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발표하기를, “저는 SDGs 4번 양질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관련 행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17가지 목표를 모두 읽어보니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양질의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곤 문제, 기후변화와 대응 문제 등 모든 문제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누군가가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정책 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이 발표를 듣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학생의 입을 통해서 놓치지 않아야 할 ‘교육의 힘’을 듣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구조는 갈수록 능력주의로 흘러갑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 권력, 높은 소득을 가져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에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능력은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앞서 언급했던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에, 교육활동을 통해 관련한 진지한 토론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감 시뮬레이션 리얼라이브즈인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 아기로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는 플레이를 합니다. 이 수업을 하며 학생들이 많이 놀랍니다. 교실에 있는 누구도 깨끗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 게임 속 자신의 아바타는 깨끗한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깨끗하게 씻지 못해서 계속해서 기생충 감염, 수인성 질환 등을 겪으며 결국 1~2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영양실조로 부모를 잃고 자신마저도 3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놀라운 고백

을 합니다. 자신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다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선택이고 노력이 아닌, 그냥 주어진 것이며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대체로 절대적 빈곤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적 빈곤 차원에서 어쩌면 물질적 불평등보다 정신적 불평등이 더 큰 사회 문제를 안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수업을 해나가며, 상대적 빈곤으로 박탈감에 무기력했던 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행운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이 공감으로 바뀌면서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의 안전망까지 뒤흔드는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해 보려는 목표 아래 진로를 설정하는 여러 학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은 15년, 20년 후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각종 정책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갈 주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불평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이 진출할 분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인가를 고민해보게 하는 교육활동은, 지금 당장의 불평등 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20년 후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불평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 책을 통해 개인의 우연성으로 획득한 능력을 당연시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겸손함이며, 이 겸손함이 보다 덜 악의적이고, 보다 더 관대한 사회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말합니다. 능력에 따른 생활공간, 관계마저도 분리되어 버린 현대 사회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만나 공적 담론을 하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공동선을 기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공교육의 현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제1 발제에 대한 질문사항

‘배태기로서 유초등 교육의 불평등 해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때, 과거에 비해 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적, 정서적 그릇의 크기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의 크기의 격차가 교육의 기회나 그 내용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재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유초등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실태와 그 한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제2 발제에 대한 질문사항

지역과 학교가 만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매우 공감합니다. 또한 불평등 문제를 단순히 교육 기회 제공과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가 인권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시급하게 도입했으면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의 정보와 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와 관련해 그 실효성과 지원 내용에 관해 물음표가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 관리하는 비용과 시간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교육 환경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 기타 의견

광주에서 열린 토론회이만큼 논의를 좁혀 광주가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와 교육청, 학교가 어떻게 협력하며 불평등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원칙적·이론적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논의를 펼쳐 보고 싶습니다.